

사고 체계에 고착된 외모지상주의

- 언어 관찰로 드러나는 외모지상주의와 그 사유(思惟) 파악을 중심으로 -

국어국문학과
2016***** 백은희

<목 차>

- 1. 들어가며
- 2. 언어 관찰에서 드러나는 외모지상주의
 - 2.1. 기호로서의 신조어
 - 2.2. 일상 표현 속 은유
- 3. 외모 프레임이 야기하는 문제들
- 4. 나가며

1. 들어가며

영화 <미녀는 괴로워>에 나오는 인상적인 대사가 있다. “남자한테 여잔 딱 세 종류야. 예쁜 여자? 명품... 평범한 여자? 진품... 너? 바로 반품이야!” 이 영화는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풍자로 큰 인기를 얻었는데, 작품 속 똥똥하고 못생긴 인물로 그려지는 주인공 강한나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평가하고 우열을 매기는 사회의 잣대로 인해 목숨까지 걸며 성형수술을 강행한다. 물론 영화에서 과장한 부분은 있겠지만, 현실에서도 외모를 기준 삼아 상대방을 대하는 모습은 결코 낫설지 않다. 예쁜 여자, 잘생긴 남자는 가치 있으며 귀한 대접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못생기고 똥똥한 사람은 무시 받아도 된다는 비뚤어진 사고방식이 일상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통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 자신의 외모를 치장하는 데에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외모지상주의(look+ism)’는 외모가 개인 간의 우열과 사회생활의 성패를 가르다고 여겨 겉모습에 지나친 집착을 하는 사회 풍조를 의미한다. 즉, 외모가 사적(私的)인 인간관계의 영역부터 공적(公的)인 사회생활 전반에 이르기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형수술 비율을 차지할 만큼

외모지상주의가 유독 만연해 있다. 본고에서는 그 원인을 사고 체계 속에 외모지상주의가 뿌리내려 ‘외모가 타인을 판단하는 필수적인 기준’ 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는 실제 언어생활에서 잘 드러난다. 우리는 머릿속의 개념 체계에 근거해 생각하고 행동하며, 언어는 그 체계를 잘 보여주는 구체적 형상이라고 할 수 있다.¹⁾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단어 및 문장들의 사례를 들어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무분별적 태도를 수면 위로 올리고, 이에 수반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언어 관찰에서 드러나는 외모지상주의

2.1. 기호로서의 신조어

소쉬르는 사고(思考)는 단어로 된 표현을 제거하면 무형의 구별되지 않는 덩어리에 불과하다고 말한다.²⁾ 다시 말해, 관념은 빛의 스펙트럼과 같이 연속선상에 놓여있으며 인간이 여기에 경계를 부여하고 자의적으로 청각 단편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관념에 대한 언어 기호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문화권과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가령 일본어에는 ‘츄데레(ツンデレ)’ 라는 표현이 있는 것에 비해, 한국어에는 이를 대체할 만한 표현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한국인들이 ‘츄데레’ 라는 관념에 경계를 설정하여 특정한 기표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어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겉으로는 쌀쌀맞으면서도 뒤에서 잘 챙겨주는 사람’ 이라고 풀어서 표현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소쉬르는 언어 사항을 단순히 개념과 음성의 결합으로 보는 것은 큰 오류라고 강조하기도 한다. 언어는 체계 내에서 다른 사항들과의 관계를 통해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항과 동시에 존재하며 가치 역시 그 관계 속에서 소극적으로 정해지게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언어학적 이론이 한국 사회 속 외모지상주의와 어떻게 연관되는 것일까? 본고에서는 먼저 신조어에 주목하여 이를 다루어 보고자 하였다. 본래 무형의 덩어리였던 개념들이 하나의 기표로 포착되어 언어 사용자의 랑그 속에 들어오게 된 것인데, 그 단초로 ‘얼짱’ 을 들 수 있다. 2000년대에 들어와 발달한 PC 통신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전보다 인터넷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따라서 인터넷은 거대한 소통의 장이 되었다. 이 때 등장한 ‘얼짱’ 은 얼굴의 ‘얼’ 에 당시 인터넷 신조어였던 ‘-짱’ 을 결합하여 얼굴이 매우 잘 생긴 사람을 일컫는 찬사로 쓰이게 된다. 이전에는 단지 ‘예쁜(잘생긴) 얼굴을 가진 사람’ 으로 표현되던 것에서 ‘얼짱’ 이라는 하나의 기호가 되어 언어 체계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얼짱’ 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하며 언어의 상대적이고 연대적인 특성을 고스란히 반영하기에 이른다. ‘얼짱’ 과 ‘얼짱’ 의 등장을 기점으로, 외모를 직접적인 평가의 대상으로 삼는 단어가 하나둘씩 만들어지고 언어 사용자에게 이질감 없이 다가오게 된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신조어의 등장이 우리 사회의 극심한 외모지상주의에 활화산 역할을 한 것은 아니다. 가장 큰 영향은 새롭게 단어가 만들어지면서 범주화를 야기하고 어떠한 이미지와 결합한다는 사실이다. 하나의 기호가 된다는 것은 이전에는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무

1) G. 레이코프·M. 존슨, 『삶으로서의 은유』, 노양진·나익주 역, 박이정, 2006, 22쪽.

2) 페르디낭 드 소쉬르, 『일반언어학 강의』, 김현권 역,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2, 228쪽.

정형’의 상태에 있었던 개념들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낳는다. 무정형의 상태일 때에는 그에 맞는 이미지가 정확히 대응될 수 없다. 그러나 하나의 기호로 특정지어지면, 이는 어떠한 이미지와 직접 대응될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 긴밀히 결합하여 기호에 대한 인식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모습은 부정적 인식과 결합될 때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안여태’, ‘파오후’, ‘멀치남’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안여태’의 경우, ‘안경을 쓰고 여드름이 난 비만 체형의 사람’을 의미하는 신조어이며, ‘파오후’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사용된다. 새로운 기호의 등장으로 인해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범주 속에 놓이고 부정적 인식과 결합하여 외모 비하의 대상자가 되고 만다. 외모지상주의에 물든 사회는 이러한 외모를 가진 사람들을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 주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 심지어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작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는 비단 비만 체형의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일명 ‘멀치남’과 같은 신조어도 외모 비하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뽀뽀 마른 몸매의 사람들을 일컫는 것인데, 이는 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이전에는 ‘뽀뽀 마른 사람’으로 인식되었던 것이 ‘멀치남’이라는 하나의 범주를 형성하며 결코 긍정적 이미지와 연관되지 않는음을 볼 수 있다. 즉, 마른 몸매를 가진 사람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이 새로운 기호는 외모지상주의가 낳은 하나의 산물인 것이다. 더 나아가 여성이 마른 몸매를 갖는 것은 바람직하고, 남성이 그러한 것은 비난받는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남성과 여성에 있어 사회적으로 정해진 이미지가 굳어져 사용되고 있다는 점 또한 내포하지만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고에서 초점을 둔 사항이 아니므로 다루지 않기로 한다.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신조어는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사고 체계에 더욱 고착화되는 데에 일조하며 모순을 갖는 단어를 낳기에 이른다. ‘성괴’가 이에 해당한다. 우리는 외모를 평가의 잣대로 삼는 사회에 못 이겨, 혹은 스스로 그에 굴복하고 성형수술을 결심하는 사례도 종종 볼 수 있다. 물론 자신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러한 경우도 있겠지만, 이러한 행위의 가장 기저에는 사회가 방치해 둔 외모지상주의가 있으리라. 사회의 요구에 자신을 순응적으로 맞추어 외형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욕심은 계속해서 그 덫에 걸리게 만든다. 이는 성형수술 중독으로 이어지고 ‘성형 괴물’이라는 단어까지 만들어내게 된다. 외모 발전에 대해 암묵적으로 강요를 당했으나, 그 누구도 적정선을 제시해 주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또 다른 단어로 비하하기까지 한다. 그야말로 어느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춰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2.2. 일상 표현 속 은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모와 관련하여 나타난 신조어는 사회 구성원이 갖게 되는 부정적 인식과 함께 얽혀 외모지상주의를 당연하고도 일상적인 것으로 느껴지게 만든다. 이와 같은 신조어는 특정 대상을 범주화한다는 이유로 외모 비하 대상자는 한정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는데, 결코 외모 비하의 대상은 제한적이지 않다. 신조어 외에 누구나 일상 속에서 들을 수 있는 표현들에서도 이를 발견할 수 있다.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자 『삶으로서의 은유』에서 제시한 은유적 표현을 바탕으로 그 예시들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혹은 적어도 한국인이라면 한번쯤은 들어봤을 범한 실제 표현들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은유가 큰 거부감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뛰어난 외모는 전경 / 뛰어나지 않은 외모는 배경」

그는 잘생긴 외모로 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그녀의 빛나는 외모에 더 시선이 간다.
주인공 얼굴이 못생겨서 내용에 집중도 안 된다.
외모가 출중한 지원자에게 면접관들의 질문이 몰렸다.
못생겨서 관심 가져주는 사람도 없어요.

위 은유를 이해하기에 앞서 ‘전경-배경(figure-ground)’에 대해 먼저 설명하고자 한다. 이는 심리학 용어로, 시각이 발생하는 원리 중 하나이다. 말 그대로 전경(前景)은 앞에, 배경(背景)은 뒤에 있기 때문에 시각적인 정보 처리에 있어 전경은 배경에 비해 더 밝게 보이며 배경보다는 전경에 집중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뛰어난 외모는 전경 / 뛰어나지 않은 외모는 배경」 은유에서 살펴볼 수 있다시피, 우리는 훌륭한 외모의 사람을 전경으로 받아들여 그에게 더 집중하고 시선이 향한다는 표현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반면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하나의 배경을 크게 신경 쓰지 않거나 혹은 병풍 취급해 버리는 것과 같은 무관심의 상황까지도 나타나게 된다.

「뛰어난 외모는 치료제 / 뛰어나지 않은 외모는 바이러스」

얼굴이 옷을 살렸다.
얼굴 때문에 괜찮은 옷도 다 죽어 보인다.
이상한 머리도 얼굴이 다 소화하네.
얼굴 보니까 화가 풀리네. / 화가 더 나네.
잘생겼으니까 용서한다.

다음으로는 「뛰어난 외모는 치료제 / 뛰어나지 않은 외모는 바이러스」 은유이다. 외모는 한 사람의 얼굴 자체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그의 생활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위 은유에서 이를 잘 느낄 수 있다. 실제 표현에 따르면 헤어스타일, 화장, 옷 등은 얼굴에 살고 얼굴에 죽는다. 마치 뛰어난 얼굴이 치료제가 되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뛰어난 외모는 감정의 상처까지도 치유해 준다. 화가 난 상황에서 잘생긴 얼굴을 보니 화가 풀리거나 용서를 해 주어야겠다는 등의 사례는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언어생활 속에서 뛰어나지 않은 외모는 바이러스와 같은 역할을 한다. 못생긴 얼굴은 괜찮은 옷도 죽게 만들고 화도 더 악화시키는 등에서 못생긴 외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잘 드러나고 있다.

「뛰어난 외모는 보탬 / 뛰어나지 않은 외모는 짐」

예쁘신 분들끼리 오셨으니 서비스 더 드릴게요.
너희들은 못생겨서 항상 웃어야(유머 감각을 터득해야)만 한다.
패션의 완성은 얼굴(몸매)이다.

성격은 좋은데 얼굴이 좀 그렇다.

외모도 스펙으로 쳐준다.

마지막으로는 「뛰어난 외모는 보탬 / 뛰어나지 않은 외모는 짐」 은유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 은유에서 외모는 더해줄 수 있는 보탬 혹은 덜어야 하는 짐의 관점에서 표현되고 있다. 가령 예쁜 사람들에게 있어 외모는 서비스와 같은 덤을 더해주거나 어떠한 상태의 완성에 보탬이 된다. 또 현재 대한민국의 경쟁 과열 사회에서는 하나의 스펙으로 작용하여 가산점이 되기도 한다. 이에 비해 못생긴 사람들에게 외모는 무겁고 덜어야 할 짐이 될 뿐이다. 좋은 성격을 깎아내리는 짐이 되기도 하고 이러한 짐을 조금이나마 만회하려면 미소를 보이거나 유머러스한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누군가를 처음 마주하는 상황에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정보는 겉모습, 즉 외모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외모라는 기준에만 사로잡혀 다른 면면을 살펴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으려는 자세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개개인의 개성이나 매력이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에 충분함에도 우리는 사회에서 만연한 외모지상주의로 인해 오로지 외적 형태에만 관심을 갖는다. 일상 속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은유적 표현들을 다루며 이미 많은 사람들의 사고 체계 내에 굳건히 박혀버린 외모지상주의의 실체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일상 표현들은 외모라는 단일 기준의 잣대에 모두가 휘둘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3. 외모 프레임이 야기하는 문제들

지금까지 사회 속에서 두루 쓰이는 실제 언어활동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외모지상주의가 어떻게 그 모습을 드러내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사회적으로 여러 문제들을 수반하게 되는데 본고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측면에서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한다.

첫 번째는 ‘자기 떨시’이다. 누군가가 외모에 대해 지적을 받거나, 혹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비하의 대상이 되었을 때 처음부터 스스로를 폄하하지는 않는다. 기분이 상하는 정도에서 그칠 것이다. 그러나 비슷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외모비하 대상자의 자존감은 점점 하락한다. 우선적으로는 자신의 외모에 따르는 평가들을 부정하지만 차츰 인정하기 시작하고, 스스로 받아들이며, 이는 더 심해져 자신에 대한 비난까지 서슴없이 향하는 지경에 이른다. 그 결과, 자존감이 바닥까지 내려가고 그의 내면은 더없이 황폐해져 간다. 한 인격의 자아에 가해지는 타격의 정도가 지나치면 돌이키기 어려운 선택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두 번째는 ‘후광효과(halo effect)의 발생’이다. ‘후광효과’는 심리학에서 일컫는 용어로, 논리적인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특성을 기준으로 나머지도 그와 같은 기조에서 평가하는 것을 뜻한다. 외모지상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현상은 특히나 발생하기 쉬운데, 외모가 수려한 사람은 성격도 좋을 것이며, 공부도 잘 할 것이고, 예의도 바를 것이라는 등의 추측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이 대표적 예이다. 그 반대의 상황 역시 부지기수이며 따라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흔하게 나타난다. 인간은 사고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본능을 지녔다. 이로 인해 외모가 불려온 상대방에 대한 근거 없는 평가들은 실제로도 그럴 것이라는 착각을 양산하고 그의 진짜 모습을 알아가려는 노력은 하지 않게 만든다.

이에 수반되어 ‘능력에 대한 평가’가 세 번째 문제로 떠오른다. 2.1장에서 다루지는 않

았지만 최근에 ‘버티페이스’ 라는 신조어가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다. ‘But her face...’ 를 발음대로 표기한 것으로, 학벌·집안·능력 등에서 월등히 뛰어나지만 외모가 아쉬운 여성을 표현하는 단어이다. 자신의 영역에서 뛰어난 성취를 보이는 데에도 불구하고 외모지상주의의 잣대가 다시금 등장하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앞선 2.2장의 「뛰어난 외모는 보탬」 은유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많은 취업준비생들은 이제 외모도 하나의 스펙으로 준비해야 하는 현실에 처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기업의 인사담당자들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지원자의 외모를 평가하는 데에는 ‘자기관리를 잘 할 것 같아서’ (1위, 45%), ‘대인관계가 원만할 것 같아서’ (2위, 36%) 등의 이유가 뒤따랐다.³⁾ 앞서 살펴보았던 후광효과로 인하여 실제 지니고 있는 능력에 대한 평가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실례라고 할 수 있다.

4. 나가며

많은 성형외과의 수가 보여주듯, 우리나라에는 특히 외모지상주의가 만연해 있다. 하나의 현상으로 존재하던 것이 이제 우리의 사고 체계에 스며들어 점점 자신의 자리를 확고히 하며 그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인간은 머릿속 체계에 입각해 행동하고 의사를 표현한다. 그리고 언어는 그 구체적 산물이므로 본고에서는 언어활동을 관찰하여 사고 체계 속에 고착된 외모지상주의를 재고해 보았다. 대표적으로 신조어와 은유적 표현의 실례를 그 근거로 사용하였는데, 우선 신조어의 경우 ‘얼짱-얼짱’ 을 필두로 가장 최근의 ‘안여태’, ‘성괴’ 등이 있었다. 무형의 덩어리였던 관념들이 하나의 기호로 경계를 부여받아 범주화를 야기하고 부정적 인식과 결합되는 양상 속에서 외모지상주의는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된다. 이는 비단 신조어에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표현들에도 외모지상주의는 은유적 표현을 방패삼아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렇게 이미 일상의 삶 속에 파고든 외모 중심적 사고는 여러 문제들을 수반하기에 이르렀다. 자기를 멸시하게 되고, 후광효과를 동반하기도 하며, 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방해하는 등 여러 부정적 결과로 이어진다.

미적 아름다움을 좇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그러나 그 정도가 지나쳐 한 인격의 자아에 타격을 입히는 정도에까지 도달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상대방을 판단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수없이 많다. 외모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이며 외모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개인과 사회를 피폐하게 만들기만 할 뿐이다. 이제는 사고 체계에 깊숙하게 뿌리박힌 외모지상주의에 대해 다시 한 번 경각심을 일깨우고 외면과 내면의 조화로운 성장을 추구할 때이다.

참고문헌

G. 레이코프·M. 존슨, 『삶으로서의 은유』, 노양진·나익주 역, 박이정, 2006
 페르디낭 드 소쉬르, 『일반언어학 강의』, 김현권 역,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2

3) “지원자의 외모? 채용에 영향 미친다?!” , <사람인>, (2017. 12. 02).

“지원자의 외모? 채용에 영향 미친다?!” , <사람인>